

민요를 발명하다- 근대일본에 있어 장르 창출의 문제

츠보이 히데토

이번 강연에서는 근대 일본에서 민요 장르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민요 수집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는 민요는 지방색을 강하게 드러내어 여러 변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요의 수집과 편찬은 강한 민족주의, 국민주의의 강렬한 요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에다 빈과 시다 기슈의 민요론에 입각하여 설명하였다. 츠보이 강연자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즈키노 코모리 우타(자장가)의 여러 변형을 들려주어 전후 일본의 민요에 관한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강연을 이어갔다.

1. 장르로서의 민요의 성립

민요라는 단어가 현대적 의미의 민요, 즉 folk song 으로 쓰인 것은 우에다 빈(上田敏)이 ‘악화(樂話)’(「帝国文学」1904)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어 Volkslied의 번역을 확정하기 위해 번역어로 속요(俗謡)의 ‘속된 것’ 리가(里歌)의 ‘시골’ 동요(童謡)의 ‘어린이’ 등과는 다른 일원적인 국민의식이 포함되어 그것이 후의 민요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시다 기슈(志田義秀)는 우에다 빈의 이러한 의식을 계승하여 일본민요개론(日本民謡概論)(「帝国文学」1906)에서 민요는 국민성을 가장 진솔하게 토로한 일종의 서정시라고 정의하며, Volkslied의 번역어로 그러한 정체성이 반영된 ‘민요’를 사용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시다 기슈와 우에다 빈은 서구의 음악을 진화론적 우위성을 전제로 하여 서양음악의 전통을 의식하면서 민요개념의 이식과 민요 수집을 주장하였다. 시다는 국민주의적 민요관이 표방하는 자연(自然)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러한 공통성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우에다 빈은 ‘악화’에서 드러난 민요관에서 에도 시대 이후의 자연적이지 않은 퇴폐적인 샤미센음악을 폄하하면서, 원주민(아이누) 음악이 갖고 있는 순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우에다 빈은 일본인은 게르만족, 아이누족은 켈트족에 대응하는 계층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민요는 순수, 순박한 것으로 문화적인 것이 아닌 야만적인 것에 가까우며 이것이 nationalism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Herder 의 Volkslieder와 일본의 민요집의 비교

시다가 독일어 Volkslied를 번역한 것이 민요였다면 Volkslied는 독일의 Herder 가 영어의 folksong, 혹은 popular song에서 만든 번역어였다. 즉, 독일은 영국의 작가의 고대문학의 수집과 민요집 편찬에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은 독일의 민요수집에 따른 국민문학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민요론은 100년이라는 시차와 지리적 차이로 인해 Herder 의 민요개념

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Herder가 민요를 수집하여 편찬한 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 당시 독일은 통일 국가로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소 공화국으로 나누어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민요집은 영국, 스코틀랜드, 켈트, 로마, 슬라브, 발트 제국, 페르시아의 민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민족과 언어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족과 국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복수형의 민족을 상정하고 있다. 반면, 당시 시다가 사용한 민족의 의미는 국민과 거의 일원화되어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과 국민국가는 단일화된다. 즉, 시다는 일본 내 각 지방의 차이와 다양성을 통해서 단일한 것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지방의 다양성의 총화가 국민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을 나타내는 지방은 인위적인 국민국가의 존재를 자연화시키게 된다. 이처럼 시다는 민요는 자연적으로 국민을 창조하는 모체이기 때문에 민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Q and A

Q 일본의 민요집의 일종인 제국동요대전(諸国童謡大全 1909)에서는 한국, 대만, 류큐 등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 때 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 지역인가? 민족인가? 국가인가?

1914년 민요집에서는 한국노래는 없다. 당시 이치야마 모리오에 따르면 조선민요는 완전히 절단되어 있음을 지적받았다. 이 당시는 일본 식민제국주의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Q 한국 1920년부터 30년까지 민요운동과 시조 운동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계층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도 민요와 하이쿠의 관련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가?

결론적으로 관계는 없다. 시조의 경우는 특정 계층의 고급문화에 속하고, 민요는 민중문화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요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인들이었다. 다이쇼 시대 민중시파에 속하는 시인들이 민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자기들이 민요를 만들었다. 그들은 주로 free verse를 가진 자유시와 민중적이고 읽기 쉬운 시를 만들고자 하였다.